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 주태국 포르투갈 대사 접견을 받았다.

입력 2019.12.16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11.00 시에 추안 릭파이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국회의사당 4층에 접견실에서 프란시스코 완 파투(Francisco Vaz Patto) 주태국 포르투갈 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프란시스코 완 파투대사는 양국 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회의장직에 임명된 추안 릭파이 의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회의장은 대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오랜동안 태국 후식의 모태가 된 포르투갈의 음식 문화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포르투갈은 아유타야 시대에 태국과 관계를 맺은 최초의 유럽 국가였다. 또한 올해 2019년은 태국과 포르투갈이 관계를 맺어 온지 508년이 되는 해이다. 국회의장은 아유타야 주에 위치한 포르투갈 마을은 양국의 관계가 아주 오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언급했고 태국국회는 양국의 긴밀한 관계 발전과 양국 국회의원들이 의견과 정보 교환을 위해 태국-포르투갈 의원친선협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을 통해 태국 국회의장은 포르투갈 국회의장에게 안부의 말을 전달하였고 포르투갈 대사는 국회의장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 포르투갈 의회도 빠른 시일 내에 포르투갈-태국 의원친선협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오랜 동안 협력해 왔고 이것은 양국의 상호 투자자 증가에 기여했음에 이해를 같이 했다.

태국 국회의장과 포르투갈대사는 두 나라의 정치와 의회제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40년 이상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포르투갈이 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원했다.

기자/편집: 태국하원사무처 국제의회단체사무국

번역: 솜자이 통쿤,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